

KIA 파죽의 7연승 드디어 '5할 승률'

축구, 제로톱에 길을 묻다

김선빈 결승타 2-1 한화 꺾어 ... 앤서니 1실점 '6승'

박지훈·최항남·유동훈 '철벽불펜' 1점차 승리 지켜



식발 호랑이들이 7연승을 달렸다. KIA 타이거즈가 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2-1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7연승에 성공했다. 한화는 '호랑이 킬러' 류현진을 내세우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6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KIA 앤서니는 5와3분의2이닝 4피안타 2사구 3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6승째를 수확했다. 국민 에이스 류현진은 7이닝 1실점(7탈삼진)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팀 타선의 침묵속에 패전투수가 됐다. 양팀이 1회부터 1점씩 주고받았다. KIA 이용규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로 2루를 밟았다. 김선빈의 땅볼 때 3루에 안착한 이용규는 안치홍의 내야안타로 홈을 밟으며 선취득점을 기록했다. 한화도 선투타자 고동진의 내야안타로 1회말 공격을 시작했다. 한상훈의 희생번트 에 이어 앤서니의 보크가 선언되면서 1사3루. 장성호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3회 1사에서 이준호와 이용규의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1-3루. 김선빈의 땅볼로 선취득점자 이용규가 2루에서 아웃됐지만 3루주자 이준호가 홈에 들어오면서 2-1이 됐다. 이후 경기는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앤서니가 4회 1사에서 김태균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최진행의 병살타로 이닝을 마감했다. 5회에는 탈삼진 두 개를 추가하며 삼자범퇴.

류현진도 4회와 5회 나지완과 김선빈에게 안타를 내주기는 했지만 탈삼진 3개를 기록하면서 실점없이 마운드를 내려왔다. 6회 두 투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나지완의 좌전안타로 1사 1루. 차일목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나지완이 도루에 성공했다. 포수의 악송구까지 더해지면 2사 3루. 유격수 이대수가 키를 넘어가는 조영훈의 타구를 간신히 잡아내면서 류현진을 구해냈다. 6회말 이닝에는 앤서니가 위기에 몰렸다. 1사에서 고동진과 한상훈의 연속안타로 1사 2-3루. 장성호의 1루수 플라이로 앤서니가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선동열 감독은 곧바로 투수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KIA 마운드의 신무기 박지훈. 역전 위기에 등판한 박지훈이 거포 김태균과의 승부에서 볼넷을 허용하며 만루에 몰렸지만 변화구로 최진행의 방망이를 헛뜯게 하면서 류현진을 옹호했다. 실점없이 6회를 막은 박지훈은 7회도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시즌 9번째 홀드를 챙기고 최항남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최항남이 공격적인 피칭으로 8회 두 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1점차 승부를 지켰고, 9회 등판한 유동훈도 선투타자 김태균에게 우전안타를 맞는 등 흔들렸지만 최진행을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했다.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대타 양성우의 안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김경언을 2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세이브를 챙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외국인 투수 앤서니가 1일 한화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를 선보이고 있다. 5와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한 앤서니는 불펜진의 도움 속에 6승째를 신고했다.



미겔스가 토털사커 전술을 완성하는 데에는 크루이프라는 결출한 선수가 있어 가능했다. 토털사커는 전원이 공격과 수비를 하며 상대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전술. 지금이야 수비수가 끝을 넣고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선수들은 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된 축구를 했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면서 전술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높은 기량과 시야를 갖춰야 하고 공수를 바쁘게 오가는 강한 체력, 약속된 전술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술을 지휘할 좋은 사령관, 즉 게임메이커가 필요했다. 한국 대표팀에서 꼽는다면 지난 남아공 월드컵에서 활약한 박지성 좀 되겠다. 넓은 시야와 강한 체력, 넘치는 카리스마, 뛰어난 개인기, 치밀한 계산력, 순발력을 모두 갖춘 선수를 찾아 나선 미겔스의 눈에 띄어온 선수는 당시 스무 살도 안 된 요한 크루이프, 훗날 역대 축구선수 랭킹에서 펠레 마라도나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선수다. 미겔스는 이 놀라운 천재에게 토털사커의 모든 것을 가르쳤고 크루이프를 통해 자신의 축구철학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갔다. 선수 시절 크루이프는 지금의 호날두(포르투갈)와 발로렐리(이탈리아)를 섞어놓은 듯했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잘생긴 얼굴에 늘씬한 키, 야성적인 카리스마로 동료선수들과 팬들을 휘어잡았다. 그도 호날두처럼 잘난체를 숨기지 않았다. "공을 가지면 내가 왕이다. 결정하는 것은 나다. 그러므로 창조하는 것은 나다." 성격 또한 요즘 말로 '악동' 이어서 돌발행동을 많이 했다. 자신에게 야유를 보냈다고 경기 중 관중석으로 올라가 관중을 두들겨 때 때드카드를 받은 것은 예사. 월드컵 결승전에 나올 때 아디다스 유니폼 3선 중 한 줄을 지워버린 일화는 유명하다. 토털사커는 축구혁명이었다. 크루이프가 1974년 서독월드컵에서 맹활약 한 이후 세계의 모든 팀들은 이 전술을 앞 다투어 도입했고 현재까지 축구 전술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로 2012에서 최고 화제는 '제로톱'. 말 그대로 톱(공격수)을 없애는 전술이다. 축구란 본디 골이 생명인데 골을 넣는 공격수를 없애는 전술이냐... 기막힌 역설이다. 스페인이 들고 나온 제로톱이 이번 유로 2012에서 처음 나온 전술은 아니다. '9번'이라는 최종 공격수를 기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미드필더를 한명 더 투입하는 전략인데 유럽 리그에서는 알게 모르게 자주 사용됐던 전술이다. 다만 그 전술이 이번 대회를 통해 '제로톱'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하겠다. /유재광기자 jkyou@kwangju.co.kr

토털사커 이후 포메이션은 4(수비수)-2(미드필더)-4(공격수)에서 4-3-3, 4-4-2, 4-5-1로 변화되어 오다 결국 4-6-0에 이르게 됐다. 미드필더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자 중원에서 경쟁력을 가진 팀들이 최전방 공격수를 과감히 없애고 중원을 두텁게 하는 극단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제로톱 전술을 실제 경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팀은 2006년 이탈리아의 AS 로마. 토털사커는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미드필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로마가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자 제로톱은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박지성이 뛰고 있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도 제로톱을 사용한 적이 있다. 판 니스텔로이가 떠나자 퍼거슨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 없이 박지성 키스 루니 호날두 등 미드필더들을 이용해 빠른 패스와 돌파로 상대의 수비를 허물었다. 이른바 맨유식 제로톱. 지금도 맨유에서 원톱 베르바토프가 역할을 잃고 벤치를 지키거나 웰벵이 좋은 활약을 하지 못한 이유는 최전방 공격수보다 미드필더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경기 흐름 때문으로 보인다. 제로톱이 본격적으로 붐이 온 것은 메시라는 볼세출의 미드필더 덕분이다. 최고의 공격수이면서 주로 미드필더 지역

토털사커 이후 전술도 진화
미드필더 역할 갈수록 커져
선수들 창조적 플레이 따라
또다른 축구혁명 가져올수도

서울의 '기적' ... 광주의 '눈물'

K리그 19라운드 원정
광주 FC, 2-3 역전패

졌지만 멋진 패배였다. 광주 FC가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K리그 19라운드 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2-3패를 기록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승부를 알 수 없는 대접전이었다. 전반 14분 광주 김동섭이 저돌적인 돌파로 절호의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문전으로 쇄도하던 김동섭이 서울 수비수 김주영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직접 키커로 나선 김동섭은 침착하게 골을 집어넣으며 시즌 5호골을 만들었다. 전반 26분에는 광주의 '말썽' 박호진의 선방이 빛났다. 문전 경합 상황에서 김은선의 파울로 서울에 페널티킥이 주어졌지만 골키퍼 박호진이 볼리나의 슈팅을 막아냈다. 박

호진은 전반 41분에도 하대성의 기습적인 슈팅까지 품에 안으면서 서울의 공세를 차단했다. 페널티킥의 빌미를 제공했던 김은선은 전반 막바지 절묘한 태클로 서울 볼리나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막아내며 앞선 실수를 만회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후반 이재권, 김주영을 빼고 김현성, 현영민을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다. 광주 최만희 감독도 후반 7분 북이 대신 중앙파울로를 그라운드에 올리며 스피드 업에 나섰다. 후반 14분 왼쪽에서 빠른 속도로 치고 오르면 중앙파울로의 기습적인 슈팅이 골대를 비껴났지만 서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공격이었다. 골키퍼 박호진은 후반 20분에도 하대성의 슈팅을 막아내며 서울을 봉쇄했지만 23분 데안의 한방은 막지 못했다. 데안의 골과 함께 서울의 공격이 매서워졌다. 후반 26분에는 최태욱의 슬라이딩 슈팅과 함께 승부가

1-2로 뒤집혔다. 최만희 감독은 지친 노형석과 박기동 대신 박현과 박정민을 넣으며 전력을 재정비했다. 작전은 적중했다. 후반 37분 박민이 슈팅을 날리며 서울 수비진을 흔들었고, 1분

뒤에는 중앙파울로의 패스를 받은 박현이 오른발 슈팅으로 서울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서울의 '데몰리션 콤비'가 마지막 골을 합작했다. 후반 42분 볼리나가 이한샘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데안이 키커로 나서 시즌 12골을 기록했다. 점수는 2-3. 광주는 마지막까지 서울 골문을 겨냥했지만 세 번째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2-3 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세번째 산행 7월 19일(목) / 변산반도-능기산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사 건너편)
www.geumsoojang.com